

주인공 없는 소설 세계의 리얼리티

—한국 소설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수평성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손 정 수*

요약

이 논문은 한국 소설의 흐름에서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관계의 변화 양상을 서정인의 『강』(1968)과 최은영의 『고백』(2016) 두 소설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담론의 차원에서 인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적 비중을 의미하는 '인물 공간'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의 연결, 방향과 강도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인물 시스템'을 분석 도구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강』의 경우 인물 공간의 비중에서 세 명의 남성 인물은 균등한 편이지만,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나 관심의 방향이나 강도에서 대학생 김씨가 다른 남성인물들에 비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름 없이 술집의 작부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전반적으로 남성 인물들에 비해 소외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후반부에서 자신의 인물 공간의 비중과 역할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반면 『고백』에서는 인물 공간의 비중보다 문제를 둘러싸고 인물들이 분담하고 있는 역할의 측면에서 균등에 대한 고려가 더 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가의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인물보다 오히려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인물이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물 관계의 수평성에서 그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독자들이 텍스트 내에 자신을 이입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에는 인물(주인공) 중심으로부터 문제 중심으로의 이행, 표현자 중심으로부터 수용자 중심으로의 이행이라는 소설의 성격 변화가 가로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주제어: 주변인물, 인물 공간, 인물 시스템, 서정인, 「강」, 최은영, 「고백」, 알렉스
윌러치

1. 들어가며
2. 수평적 관계 이면의 불균등성 - 서정인의 「강」
3. 인물의 역할 분담에 의한 수평적 관계의 재편
- 최은영의 「고백」
4. 인물 관계 구조와 소설의 성격 및 기능 사이의 상관성
5. 맺으며

1. 들어가며

“인물의 후퇴는 20세기 소설 이론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듯 보인다”¹⁾는 알렉스 윌러치의 말은 그리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의 신화를 체현하고 있는 고전적 인물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후 소설에서 그 자리는 평범하고, 무기력하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들로 채워져왔다.

알렉스 윌러치는 인물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가 획득한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성과로 심층적 심리탐구(depth psychology)와 사회적 팽창성(social expansiveness)을 꼽는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문체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의식 세계를 깊이 있고 폭넓게 탐구할 것을 요청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다수의 인물들을 현실적으로 재현해내면서 인물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다. 그러자면 주인공의 중심성을 되도록 줄이면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민주적으

1) Alex Woloch, “Minor Character”, *The Novel II: Forms and Themes*, edited by France Moretti,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295.

로 구축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주인공을 강화하면 주변 인물의 관계가 왜곡되지만, 그렇다고 주변인물의 비중을 늘리자면 주인공의 공간이 협소해져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는 인물들 사이에서 공간의 확보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의 무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실 반영의 장르인 리얼리즘 소설에서 이 인물 공간을 둘러싼 경쟁은 현실 속의 사회적 경쟁에 대응되는 것이기도 하다. 20세기 소설에서 주인공이 보다 평범한 인물로 교체되는 흐름을 보여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변인물의 공간이 점차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서사를 스토리(story)와 담화(discourse)로 구분하는 방식에 의거해서 생각하면, 스토리의 차원에서는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해도 어느 시점까지 담화의 차원에서 주인공이 차지하는 인물 공간의 범위는 여전히 넓었던 것도 사실이다. 알렉스 윌러치는 인물이 서사담화의 차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소설 속 공간을 “인물 공간(character space)”으로 규정하면서 소설 장르의 역사를 탐색하는 새로운 분석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²⁾

이 글은 한국 소설에서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관계가 변화해온 양상을 ‘인물 공간’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그 변화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선 등장인물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어 온 서정인의 『강』(1968)을 ‘인물 공간’의 양적, 질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그와 비교하여 그 문제가 최근의 한국 소설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최은영의 『고백』(2016)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³⁾ 그리고 그와 같은

2) *Ibid.*, pp. 304-305.

3)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이 정밀하게 고찰되기 위해서는 보다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양적인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두 편의 소설 이외에 유사한 인물 관계 구조를 갖춘 몇 편의 소설, 그러니까 『강』 이전의 이태준의 『패강냉』(1938), 『강』

비교 분석을 토대로 후반부에서는 최근 소설에 나타난 인물 구조의 변화가 의미하는 징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수평적 인물 관계 이면의 불균등성 - 서정인의 「강」

서정인의 단편 「강」은 주인공과 주변인물 사이의 경합이 이전과는 다른 구도를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이다. 여전히 주인공의 비중이 컸던 그 무렵의 소설들과 현격하게 비교될 만큼, 이 소설에서는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물들은 유사한 비중을 갖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3인칭 시점의 서술은 인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만 김, 이, 박 등의 성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옷차림, 군대 경험, 선글라스에 대한 연상 등을 통해 전혀 신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 인물을 점진적으로 성격화해 나간다. 그래서 특히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세 명의 남성 인물 사이의 구분도 쉽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 소설은 「정보의 지연, 비개성화, 인과성 부재의 나열, 현재형 시제, 사전제시와 소급제시의 중첩 등을 통해 소통이 차단된 인간 군상에 균등한 시선을 부여」⁴⁾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서정인 초기 소설에 대한 평론의 한 대목인 다음에서는 「강」에 나타난 개별 인물들 각각에 대한 서술의 수평적 배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서술자는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도 결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과 「고백」 사이의 윤성희의 「유티시점에 보물지도를 묻다」(2004), 그리고 「고백」 이후의 조남주의 「여자아이는 자라서」(2018) 등을 소략하나마 함께 검토하여 그 흐름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4) 박성천, 「서정인 「강」의 서술성 연구」, 『어문논총』 16, 2005. 8, 201-202면.

다. 소설의 공간은 이렇게 특별하게 뛰어나지 못한 범상한 인간들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소설 속의 누구도 삶에 대해 특권적인 지위에 있지 못하며 단지 자기 몫의 삶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버스에서 만났던 술집 여자는 김씨가 대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감격하지만, 그것은 이 여자보다 김씨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김씨 역시 꿈을 좌절당한 그렇고 그런 인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대학생과 결혼에 대한 이 여자의 동경과 환상은 장님 안마장이에 대한 김씨의 감상적 동경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모두 삶에 시달리고 지쳐 있으면서 얼마간의 환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⁵⁾

이 소설에서 서술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인물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마치 주인공이 없는 듯한 소설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⁶⁾

그런데 과연 이 소설에서 인물들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

5) 이광호, 『소설은 어떻게 눈뜨는가』, 『강』, 문학과지성사, 1996, 331면.

6) 『강』의 인물 구성의 성격과 객관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보다 30년 정도 앞서 발표된 『패강냉』을 비교의 대상으로 소환해보기로 한다. 『패강냉』은 『강』과 인물 구성에서 기묘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세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물 구도 자체도 그렇지만, 개별 인물들을 보더라도 두 소설에서 여성 인물이 기생(『패강냉』의 영월)과 작부(『강』의 서울집 여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직 고등보통학교 교사(『패강냉』의 박)와 전직 국민학교 교사(『강』의 박), 부회의원이자 실업가(『패강냉』의 김)와 세무서 직원(『강』의 이), 소설가(『패강냉』의 현)와 늙은 대학생(『강』의 김) 등 남성 인물들의 직업의 성향에서도 세 유형으로 짝을 지어볼 수 있다. 그런데 인물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비중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세 남성 인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측면에서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강』과 달리, 『패강냉』에서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 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김은 경제가의 전형으로 안타고니스트 역할로 등장하며, 정작 전임직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는 박은 김과 현의 갈등을 중재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다. 기생 영월 또한 현의 관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인물로 규정되고 있다. 다른 인물들을 관념적으로 대상화하면서 그와 맞물려 현의 의식과 감정은 감상적인 성향을 강화해나간다. 이와 같은 면모는 이 소설이 당시에 “무류의 치졸성과 문청성”(김문집, 『수난의 기록』과 『패강냉』—신춘창작대관(6), 『동아일보』, 1938. 1. 21)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는가. 위의 인용에서는 어떤 인물에도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서술의 특징을 연장하면서 인물들의 계층적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와 같은 수평성이 세 명의 남성 인물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술집 여자까지 포함하는 범위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 소설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 남성들의 관계로부터 소외된 여성 인물에 주목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남성 인물 가운데 일부는 버스의 차장이나 서울집 작부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에게 수시로 성적인 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남성 인물들과 달리 서울집의 작부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에게는 성조차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⁷⁾ 초라하고 남루한 세 명의 남성 인물들에게서 삶의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성 인물들은 그들보다도 더 주변의 자리에서 다만 부분적으로 남성의 상대로서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살펴보면, 세 명의 남성 인물 사이의 관계 또한 전적으로 수평적이지만은 않다.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의 공간과 그 관계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서사의 표면에서 감지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위해 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추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한 선행 연구에서 그것이 작성되어 활용된 바 있어서 그것을 일단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 ① 검정 외투를 입은 사나이, 밤색 잠바를 입은 남자, 검색 고깔모자를 쓴 남자가 버스에 타고 있다.
- ② 세 사람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각각 입대와 관련된 일을

7) 『강』의 인물 구조에 나타난 젠더의 관점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9, 2018. 8, 143-144면 참조.

떠올린다.

③ 세 사람은 검은 색안경을 보고 김씨는 장님을 생각하고, 잠바 입은 사나이는 멧별 것을 생각하고, 고깔모자 쓴 사람은 형사를 연상한다.

④ 고깔모자를 쓴 전직 초등학교 선생 박씨와 밤색 잠바 입은 세무서 직원 이씨는 각각 옆자리 여자와 차장과 수작을 걸며 늙은 대학생 김씨는 그저 듣고 있다.

⑤ 세 사람은 군하리에 도착해 여자와 헤어지고 혼사 치르는 집을 물어 길을 간다.

⑥ 결혼식에서 돌아온 세 사람 중 박씨와 이씨는 술집으로 가고 김씨는 여인숙으로 간다.

⑦ 늙은 대학생 김씨는 여인숙에서 방을 치우는 한 소년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⑧ 술집에서 이씨와 박씨는 낮에 버스를 같이 타고 왔던 술집 여자와 희롱한다.

⑨ 술집에 있던 여자가 눈을 맞으며 대학생 김씨를 데리러 간다.

⑩ 술집 작부가 자고 있던 대학생 옷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는 불을 끈다.⁸⁾

이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각 인물들의 겪는 사건의 ‘경로(path)’⁹⁾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김씨: ①-②-③-(④)-⑤-(⑥)-⑦-(⑩)

이씨: ①-②-③-④-⑤-⑥-⑧

박씨: ①-②-③-④-⑤-⑥-⑧

8) 박성천, 앞의 글, 202-203면.

9) 피터 라비노비츠가 스토리와 서사담화를 서술자 위주로 된 개념이라 비판하면서 인물에 초점을 둔 제3의 용어로 제안한 개념이다. Peter J. Rabinowitz, “They Shoot Tigers, Don’t They?: Path and Counterpoint in *The Long Goodbye*”,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edited by James Phelan and Peter J. Rabinowitz, Blackwell Publishing, 2005, p. 182 참조.

서울집 여자: ④-(⑤)-⑧-⑨-⑩

소년: ⑦

이 경로는 피터 라비노비츠의 논의에서 제시된 것처럼 개별적 인물의 경험의 순서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겠지만, 이 논의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인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서사의 공간의 위치와 비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실질적인 용도가 있다.

우선 비중의 측면에서 김, 이, 박 세 인물의 공간은 비교적 균등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인물들 사이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박은 그 공간의 점유 양상에서 유사하지만, 김의 경우는 그들과 차이가 있다. 중반부까지 세 인물이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와 박에 비해 활동성이 부족한 김의 인물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인숙에서 만난 소년을 매개로 인생에 대한 상념이 진술의 형태로 제시된 ⑦의 분량과 소설 속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김의 인물로서의 특징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더구나 소설의 결말에 해당되는 ⑨와 ⑩에서 이와 박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 소설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 김씨는 이러한 현실의 논리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술자의 시점에 가깝다”¹⁰⁾고 보는 시각이 제시되었으나, 거기에서는 “그러나 김씨 역시 이들과 같은 층위에서 구차한 현실 속에서 이미 바래진 꿈을 추스르며 살고 있는 사람의 하나일 뿐이다”¹¹⁾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계층적 동질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인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이와 박은 소설 내내 거의 행동을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에는 연대의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은 거의 대부

10) 이광호, 앞의 글, 332면.

11)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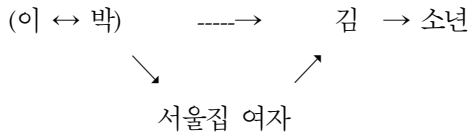
분의 장면에서 질투와 증오의 감정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집 여자를 찾아갈 때 들은 한마음이 되지만 서울집 여자를 사 이에 두고 술을 마시면서 들은 반목한다. 또한 소설은 이와 박의 통속성과 그에 물들지 않은 김의 내면을 대조시키는 데 결코 무심하지 않다.(자 세히 보면 이와 박 사이에도 상대적인 성격의 대비가 존재한다.) 이와 박 이 차장, 그리고 동승한 여성(이때까지는 술집 작부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을 희롱할 때, 혹은 그 희롱을 부러워할 때 김은 모른 척한다. 박과 이를 서술하는 수식어가 각각 '실용' '기피자'(박), '멋내기' '울적' '약다' '뻔뻔'(이) 등인 반면, 김의 경우에는 '창백' '상상' '무감동' '시치미' '모른 척' '몽롱' '골똥' '핏기 없는' 등으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알렉스 윌러치는 담론 내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인물들 사이의 관계의 연결, 방향과 강도의 측면 또한 인물들 사이의 경쟁에서 의미를 갖는 요소라고 보고, 이를 '인물 공간'과 구분하여 '인물 관계의 시스템(character system)'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소설 내의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시스템이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ng)이면서 동시에 인물 공간을 둘러싼 투쟁(intersecting)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이런 관점에서 「강」의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은 인물들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비중과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김은 이와 박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식에도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과의 감정적인 교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소설 속에서 늙은 대학생 김씨가 가장 강렬하게 자신을 투사하는 대상은 여인숙에서 만난 소년이다. 한편 이와 박은 서울 집 여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다만 이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반사적으로 박으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 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설의 후반에서 심부름을 핑계로 이와 박으로부터

12) Alex Woloch, *The One vs. The Many: Minor Characters and the Space of the Protagonist in the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 17.

터 벗어난 서울집 여자가 향하는 대상은 대학생 김씨이다. 이 인물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의외에도 이름도 없는 서울집 여자로 보인다.



표면상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대비 구도는 서울집 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다르게 재편될 수 있다. 김은 오히려 이와 박보다 서울집 여자 및 소년과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삶의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순수한 기대를 갖는 소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늙은 대학생 김씨의 회환이 펼쳐지면서 그의 고단하고 무기력한 삶에도 가슴 뛰던 열망의 순간들이 있었음이 아프게 환기되고 난 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서술의 조명은 대학생 김씨를 깨우러 갔다가 잠든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 서울집 여자를, 그녀가 남긴 발자국을 하얗게 지우며 소복소복 쌓이는 눈을 비추고 있다. 이 인물 시스템의 구도로 보자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반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와 박, 그리고 김 등 남성인물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 언어로 이루어진 탁류가 세대의 차원에서는 여인숙의 소년, 그리고 젠더의 차원에서는 서울집 여자 등의 새로운 흐름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창녀와 성녀로 이분화된 여성의 이미지가 근본적인 한계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는 인물 공간과 인물 시스템에서의 변화가 징후적으로 드러나 있다. 소설 속에서 여성 인물이 그 점유 공간을 확보하는 경쟁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이 변화는 (소설 속 인물인 초반부의 여차장이나 후반부의 서울집 작부에서 보듯) 비록 성적인 추행과

편견 속에서 최하층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도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시작한 현실의 변화와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설에서 제목 ‘강’은 인생의 한고비에 이른 남성 인물의 존재와 세계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왔지만, 이 인물 공간의 관점에 의거하면 세대와 젠더가 교차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휘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의 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볼 수도 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나온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멀리 더 흘러가야 할 강의 어느 지점이었던 것이다.

3. 인물의 역할 분담에 의한 수평적 관계의 재편

- 최은영의 「고백」

이 흐름은 이후 여성 작가들의 등장에 의해 보다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어왔다. 그렇지만 그 초기에 여성은 남성의 사회적 문제를 목격, 이해,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내러티브 내에 존재할 수 있다(가령 박완서의 『나무』(1970)에서 아버지와 오빠, 옥희도, 태수 등의 남성으로 둘러싸인 이경).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소설 속 여성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가령 남편과 아이와 미지의 사내에 대한 의식으로 분열되어 있는 오정희의 『비어 있는 들』(1979)의 여성인물 ‘나’). 이 경우 여성의 서사라고는 하지만 여성의 인물 공간은 그렇게 넓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후 소설 내에서 여성의 인물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가령 공지영의 『동트는 새벽』(1988)에서 정화와 순영의 연대).

소설에서 여성의 인물 공간이 확장되어 온 흐름은 최근에 들어 그 물살이 급해졌다. 최은영의 『고백』(2016)을 그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¹³⁾

13) 「강」과 「고백」 사이에 놓인 한 과정으로 윤성희의 「유타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도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세 명의 여성 인물(‘나’, W, 고

이 소설에는 「강」과는 대조적으로 세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남성(‘나’=종은)은 서술자의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라는 신분의 인물이다. 이 점 또한 서술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어 있고 또 술집 작부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강」의 여성 인물과 대비되고 있다. 이 대비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앞서 「강」에 적용했던 ‘인물 공간과 인물 시스템’을 여기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그 작업을 위해 우선 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우선 추출해보기로 한다.

- ① ‘나’(종은)와 미주는 대학 시절 만나 한때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 ② 미주가 세 명의 여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여준다.
- ③ 미주와 주나, 진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 ④ 셋은 미묘하게 어긋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
- ⑤ 셋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깊은 우정을 나눈다.
- ⑥ 진희의 열여덟 번째 생일날 진희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 ⑦ 진희의 죽음 이후 주나는 미주를 피한다.

등학생)과 한 명의 남성 인물(Q)로 이루어져 있어 「고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윤성희 소설의 경우에 인물들은 성별의 구분이나 혹은 세대의 차이에 의해서도 크게 구애되지 않는 특이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 관계에서는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가 「고백」보다도 오히려 성별을 초월하는 더 수평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는 현실을 앞질러가는 관념적인 소설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 문제가 이야기 속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인물 관계는 「고백」에서처럼 현실로부터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그 수평성은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을 갖게 된다.

⑧ 대학에 진학한 미주와 주나는 그해 여름 우연히 만나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

⑨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미주와 주나는 진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관계의 파탄을 맞는다.

⑩ 고백을 듣고 난 '나'(중은)는 농활에서 처음 만났을 때 무당에게 대들던 미주를 떠올린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①②와 ⑩의 바깥 이야기와 ③-⑨의 안 이야기로 구분된 액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바깥 이야기는 '나'(중은)가 화자가 되어 미주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 이야기는 미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나'가 서술하여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인물들이 서사 속의 존재하는 지대와 경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중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미주: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주나: ③-④-⑤-⑥-⑦-⑧-⑨

진희: ③-④-⑤-⑥-(⑦)-(⑧)-(⑨)-(⑩)

그런데 미주의 이야기를 '나'(중은)가 전하고 있는 안 이야기에는 그와 같은 시점 형식을 환기하는 대목들이 간헐적으로만 배치되어 있다. 가령 “진희를 생각하면 가느다랗고 긴 팔이 떠오른다고 미주는 말했다”¹⁴⁾나

14) 최은영, 『고백』, 『내게 무해한 사람』, 문학동네, 2018, 191면. 이 소설의 첫 발표는 『문학동네』 2016년 겨울호에 '나의 이력서'라는 단에서 이루어졌다. 두 판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나의 가정과 관련된 서술이 단행본에 수록되면서 삭제된 것이 눈에 띈다. 아마도 실제의 상황을 지시하고 있는 측면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결과일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왜 세 인물이 주나에 집에 자주 모여 지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해졌다. 그리고 이 글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진희와 미주에 비해 비중이 적은 편인 주나의 인물 공간이 더 축소된 효과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주는 자주 토했던 기억,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괴로웠던 기억, 여러 명과 함께 교실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진땀이 흐르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¹⁵⁾와 같은 대목에서 미주를 발신인으로 하여 그것을 ‘나(종은)가 전달하고 있는 서술 구조가 확인된다. 그러나 그런 대목이 예외를 이루고 있고, 안 이야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지적 시점에 의해 독자가 직접 세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나(종은)의 서술자로서의 기능은 뚜렷하고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인물 공간도 협소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점유하는 서사의 공간은 액자 바깥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 인물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성 인물들의 관계의 경우 인물 공간의 물리적인 비중의 측면에서는 다소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관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 비중에서는 대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관계의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 세 인물이 친구가 되고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비중은 인물 공간의 측면에서나 혹은 캐릭터 시스템의 측면에서 모두 수평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보인다. 다음 대목을 보면, 그와 같은 인물들 사이의 삼각형의 균형감각은 소설 속에서 의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셋이란 이런 거구나. 미주는 종종 자신이 주나와 진희의 특별한 관계에 딸린 부록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둘의 관계에는 미주가 개입할 수 없는 단단한 지점이 있었다. 그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진희는 자기가 말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렇잖아. 너희 둘은 허물이 없다고 해야 하나. 편해 보여. 내가 낄 수 없을 때가 있어.”

“아니지. 내가 깎두기지. 너희끼리 책 빌려 읽고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럴 때 난 할말 없었어.” 주나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 셋은 싱긋이 웃었

15) 같은 글, 199면.

다. 셋이라는 숫자 안에서 모두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가볍게 느껴져서였다.¹⁶⁾

안 이야기 내부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세 인물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균형을 잃지 않고 유지된다. 그렇지만 진희의 열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진희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관계의 균형은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진희의 바람과 달리, 미주와 주나는 친구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나는 동성애 자체에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주는 의식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나 그것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아 결국 진희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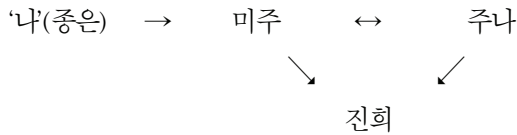
소설은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전환하여 미주가 주위로부터 위로를 받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으로 진희가 유서조차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 이후의 이야기는 진희의 죽음으로 인해 미주와 주나가 겪게 되는 일련의 외면과 재회와 갈등, 그리고 결별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스토리의 차원에서 보면, 소설 속 인물들이 대체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표면상으로는 중은과도, 그리고 주나와 진희와도 모두 관계되어 있는 미주가 그 중심에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진희는 죽음으로 인해 소설의 중반에서 사라지지만 그림에도 그 죽음의 그림자는 인물들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해석의 차원에서라면 그 그림자 또한 서사에서 인물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

16) 같은 글, 192-193면.

17) 이처럼 미주와 주나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진희의 고백 이후의 상황을 극화하지 않는 「고백」의 방식 또한 이 글의 후반부에서 논의하게 될 문제 중심의 인물 관계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문제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 가령 대학에 입학한 이후 우연히 만난 주나와 미주는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도 진희의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서사 공간 안에 진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 합의된 회피는 오히려 그 다음 장면에서 미주와 주나 사이에 더 극적인 갈등의 폭풍을 예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표면적으로는 미주를 통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나(종은)’가 독자 사이에서 다른 인물들을 매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물 시스템의 중심에서 그 교차점에 위치한 인물은 실질적으로는 진희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속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진희의 독서 방식은 바로 진희 자신에게 재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진희는 소설 속 주변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걸 좋아했다. 주제와 핵심 제재를 파악하는 것이 독서의 전부인 줄 알았던 미주는 진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설을 읽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재미를 느꼈다. 미주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었을 때도 진희는 진희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읽어냈다. 자기가 의도치 않았던 부분, 알지 못했던 부분이 진희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이 미주는 신기했다.¹⁸⁾

서술이 겹 이야기와 안 이야기 모두에서 일인칭 화자에 의해 이루어진

18) 같은 글, 191-192면.

다는 점에서 보면 좋은이,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 전체에서 중심에 놓여 다른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주가 각각 소설의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경험해왔던 소설은 이처럼 어떤 사건을 겪고 그로 인해 의식적, 무의식적 변화를 거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성립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심인물이라는 용어에 입체적 성격(round character)이나 불투명한 성격(opaque character)을, 그리고 주변인물이라는 용어에 평면적 성격(flat character)이나 투명한 성격(transparent)을 주로 대응시켰던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백」에서는 소설 속 사건을 자기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진희가 오히려 중심에 놓여 그를 둘러싼 다른 인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문제 중심의 인물 관계 구도는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 캐릭터의 관계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와 같은 인물 관계 구도에서는 표현자의 의식 혹은 무의식의 반영으로서 소설의 성격이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¹⁹⁾

4. 인물 관계 구조와 소설의 성격 및 기능 사이의 상관성

그런데 인물들의 관계는 단지 그들 사이의 수평성 여부의 문제에만 한정된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인물 시스템을 텍스트 외부까지 연장하여 개별 인물들 각각의 '경로'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텍스트 속 인물들을 경유하면서 구성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다.

19) 인물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Marina MacKay,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the Nov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그는 의미의 중심이나 단일하고 지배적인 언술의 주체를 세우는 것 대신에 소설의 공간을 타자와 독자에게 개방한다. 그의 소설 공간은 마치 『우리 동네』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찬 네거리와 같은 공유지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 공유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들의 운명과 관점대로 삶을 엮어간다. 독자들은 그의 소설을 통해 그 공유지로 들어갈 수 있고 타자들의 삶의 내력이 배어 있는 소음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²⁰⁾

위의 인용에서는 「강」의 인물 관계의 구조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아마도 당대의 다른 소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인물 관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강」이 독자가 텍스트에 이입하는 방식에도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제공한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그 비교의 대상이 인물들의 관계가 보다 수평적인 방향으로 더 진행된 현재의 텍스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더구나 독서 주체의 상황의 변화 또한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령 「강」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물 관계 시스템의 중심에 대학생 김씨가 놓여 있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텍스트에 진입할 때 가장 쉽게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대학생 김씨, 혹은 그의 분신과 같은 민박집의 소년일 것이다. 남성인물들의 성격이나 경험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설사 독서 주체의 성향이나 삶의 경험이 ‘김’보다 ‘이’나 ‘박’과 더 가깝다고 해도 실제로 독서의 상황에서 자신을 ‘이’나 ‘박’에 이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나 ‘박’에 독서 주체 자신의 입장을 위탁해서는 결말까지 순조롭게 독서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독서 주체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텍스트 내에 자신을 이입할 대상이 같은 성별의 여성인 여차장이나 서울집 작부가 될 여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아마 소설이 발표될 당시에는 그런 입장에 놓인 여성의

20) 이광호, 앞의 글, 335면.

비중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컸으리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입장의 여성들이 이 텍스트와 마주할 상황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강」과 비교하여 「고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서 주체가 자신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자신이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고백」의 인물 관계 시스템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 문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레즈비언인 진희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를 가진 미주와, 여전히 타자에 대한 이해의 범위 바깥에 있는 주나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세 인물은 비록 정밀하게 균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관계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독자의 판단에 따라 세 인물 가운데 어느 한 인물에 자신을 이입하여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만일 독자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중은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는 상황을, 이 문제 구도에서 크게 소외되지 않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텍스트와 독자가 맺고 있는 이와 같은 소통 구조의 변화는 소설 자체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소설에서 인물 중심으로부터 문제 중심으로의 이행, 그리고 표현자 중심으로부터 수용자 중심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비는 리처드 로티의 자아 창조(self-creation)와 정의(justice), 사적 완성과 인간의 연대성 사이의 대비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리처드 로티는 “자아 창조의 어휘는 필연적으로 사적이고, 공유되지 않으며, 논변에 부적절하다. 정의의 어휘는 필연적으로 공적이고, 공유되며, 논변의 교류를 위한 매개물이다”²¹⁾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백」에 나타나는 문제 중심, 수용자 중

심의 독서를 위한 텍스트의 인물 구조는 논변과 토론을 독서의 중심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리처드 로티 논의의 한 축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문제 중심, 수용자 중심의 텍스트는 루이스 엠 로젠블랫의 문학교육적 관점에 부합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문학을 통해서 부가적인 정보보다는 부가적인 경험을 얻기 때문에, 문학을 세상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넓혀주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두었다. 새로운 인식은 그들에게 역동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달된다. 문학은 단순히 무엇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는 경험을 제공한다.²²⁾

『고백』과 같은 소설은 자신의 입장에서 가까운 인물에 이입하여 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학 작품이 예술적, 심미적 기법의 학습보다 학생들과 문학 작품 사이의 상호교통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³⁾

21) Richard Rorty, 김동식·이유선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민음사, 1996, 21면.

22)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엄혜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38면.

23) 조남주의 『여자아이는 자라서』는 『고백』의 인물 관계 구조를 젠더의 방향으로 더 급진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도 세 명의 여성 인물과 한 명의 남성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네 명의 인물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 세대로 이루어진 여성 인물들은 비교적 균등한 비중을 가지면서 세대에 따른 젠더 의식의 차이에 따라 독자들이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입장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딸의 학급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나와 엄마, 그리고 딸 사이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세 여성 인물에게 이 사건은 소설의 결말에서 연대의 계기로 귀결된다. 한편 '나의 남편인 남성 인물은 그다지 큰 비중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장모, 아내, 딸로 이루어진 여성 인물들의 갈등/연대 관계 내부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5. 맺으며

서정인의 「강」은 인물 관계의 수평성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지닌 소설로 평가되어 왔고, 인물 공간의 양적 측면에서는 그 비중의 수평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물 공간의 질적 측면과 인물 관계의 시스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 인물이 중심에 놓인 구조가 발견된다. 또한 여성 인물은 인물 공간의 측면에서 남성 인물들에 비해 더 소외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인물 관계의 측면에서는 결말에 이룰수록 그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존재감을 갖기 시작한다. 한편 「고백」의 경우 인물 공간의 양적 비중에서는 다소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를 둘러싼 입장의 측면에서 인물들은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물 관계의 구조의 차이는 독자들이 독서 과정 중 자신을 이입하는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강」의 경우 작가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인물 이외에 독자가 자신을 이입하기 어려운 반면, 「고백」은 자신의 입장에 대응되는 인물에 이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문제를 둘러싼 다른 입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물 관계가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구조의 변화에는 소설 자체의 성격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설의 무게 중심이 인물(주인공)로부터 문제로, 표현자로부터 수용자로 이동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남성 인물들의 공간에 여성들이 진입하여 경합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일종의 정치적 무의식의 상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성 인물들에 의해 배제된 성적 소수자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표시하면서 그 이념의 방향으로 인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공간의 변화를 동반한 이러한 소설 자체의 성격 변화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에 걸친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가 투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서정인, 『강』, 『창작과비평』, 1968. 봄, 『강』, 문학과지성사, 1996.
최은영, 『고백』, 『문학동네』, 2016. 겨울, 『내게 무해한 사람』, 문학동네, 2018.

이태준, 『패강냉』, 『삼천리문학』, 1938. 1.
윤성희,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창작과비평』, 2004. 여름.
조남주, 『여자아이는 자라서』, 『릿터』, 2018. 8/9.

2. 논저

김문집, 『「수난의 기록」과 『패강냉』—신춘창작대관(6)』, 『동아일보』, 1938. 1. 21.
박성천, 『서정인 「강」의 서술성 연구』, 『어문논총』 16, 2005. 8, 199-218면.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십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9, 2018. 8, 135-164면.
이광호, 『소설은 어떻게 눈뜨는가』, 『강』, 문학과지성사, 1996, 323-336면.

MacKay, Marina,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the Nov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Rabinowitz, Peter J., “They Shoot Tigers, Don’t They?: Path and Counterpoint in The Long Goodbye”,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edited by James Phelan and Peter J. Rabinowitz, Blackwell Publishing, 2005, pp. 181-191.

Rorty, Richard, 김동식 · 이윤희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민음사, 1996.

Rosenblatt, Louise M., 김혜리 · 엄혜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Woloch, Alex, *The One vs. The Many: Minor Characters and the Space of the Protagonist in the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Woloch, Alex, “Minor Character”, *The Novel II: Forms and Themes*, edited by France Moretti,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295-323.

<Abstract>

The Problem of Reality in the Narrative without the Protagonist

—the meaning of competition over space among characters

Son, Jeong-Soo

This paper aims at surveying the relation between protagonist and minor characters by comparing *Seo, Jeong-In's "Gang(River)"*(1968) and *Choi, Eun-Young's "Go-Baek(Confession)"*(2018). In “*Gang*”, the proportion among three male characters seem to be equal, but from the aspect of direction and intensity in the relation one of them is superior to the others. On the contrary, in “*Go-Baek*” the characters have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character system is constituted by thematic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in equality among characters exerts influence on the way of reader’s response to the text, and this latest trend is thought to be connected to the transition of concern in narrative from the writer to the reader.

Key Words: minor character, character space, character system, *Seo, Jeong-In, "Gang(River)"*, *Choi, Eun-Young, "Go-Baek(Confession)"*, Alex Woloch

투 고 일 : 2019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27일-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